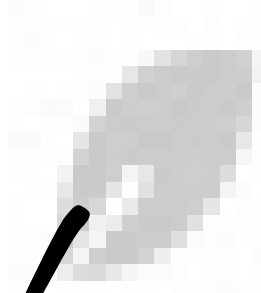


제 12 차 감 리 교 청 년 주 일

12th Methodist Youth/Young Sunday



생기
파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Korea Methodist Church Education

Methodist Youth/Young Fellowship in Korea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

CONTENTS

03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 이벤트

04 청년주일 설교문 1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김오성 목사

07 청년주일 설교문 2

동탄교회 / 박장규 목사

13 청년주일 그룹 성경공부

20 청년교회 사례 1

태은교회

22 청년교회 사례 2

부평제일청년교회

23 청년교회 사례 3

성민교회

갈리교청년회의 소개 및 사업





제12차 감리교 청년주일은
9월 25일 입니다'

주 제 : 생기팍팍

주제성구 :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33편 1절)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대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 주세요.
2. 청년주일 설교, 청년주일 성서공부를 해주세요.
3. 청년과 관련된 설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4.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5.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6. 청년지도력양상을 위해 청년들과 2011년 1월 캄보디아로 워크캠프를 떠납니다.
워크캠프는 우물파기와 도서관 만들기, 화장실 만들기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하면서 선교의 의미를 깨닫고 청년지도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일 헌금의 일부를 청년지도력양성에 쓰일 수 있게 보내 주세요.
(감리교청년회 : 우리은행 142-422823-13-001)

단체티셔츠를 팔자!
신청만 해도 단체티가
팍팍!! 청년회 소개와
사연을 올려주세요
신청: 감리교청년회
사이클럽

감리교청년은 ○○다
청년주일 엽서 뒷면에
있는 질문에 기발한
답을 하시고,
감리교청년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청년주일 사진을 올려라!
청년주일을 지킨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시음권을 드립니다.
단체티를 다같이 입고
찍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사이클럽 : www.club.cyworld.com/MYF2006

서울시 중구 태평로가 64-8 감리회관 13층 감리교청년회 (문의 02-377-2686/2176)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시편 133편 1절)

김오성 목사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상임총무)

기독교 윤리의 급진성, 사랑의 급진성을 잘 들어내주고 있는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교회 언저리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내에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비 기독교인들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기독교인들이 왜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편견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넘어서라는 것이 그 진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기초로 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한 이후에 힘없는 사람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수탈당하는 히브리 백성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대입시킨다면 이런 해석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적용 인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의 수립이지, 원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상하 관계, 폭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관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상대방을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 관계 때문에 형성되어 어긋난 관계들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그들이 처한 위치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걸었고, 견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형태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농경생활을 하던 가인과 양을 치던 아벨, 적자 출신인 이삭과 서자 출신인 이스마엘, 호적상 장자인 에서와 차남인 야곱, 사랑받던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들과 대립들이 어떤 차이에 기초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 그 처참하고 비참한 편견들이 어떤 결론들을 발명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립과 갈등이 만들어낸 일은 최초의 살인이었고, 추방이었고, 사기였고, 인신매매 등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비참한 사건들은 차이에 기초한 편견에 그 불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방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또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시절에는 어머니와 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심리적 의존관계를 지닌 유아는 어머니가 웃는 것을 자신이 웃는 것으로, 어머니가 우는 것을 자신이 우는 것으로 파악하는 거울 단계에 있게 됩니다. 아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와 나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아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는 차이를 획정하게 되면서입니다.

이렇게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차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성숙을 향한 중요한 단계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숙을 위한 어떤 계기들이 차별로 이어지게 될 때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와 같이 모든 것을 경쟁을 기초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민 말루프라는 학자는 <사람잡는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차이에 기초한 정체성의 형성이 힘을 기초로 한 대립 상황에서 늘 내부 분열과 타자를 배제시키는 완고하며 천박한 양자택일로 몰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때문에 생기는 차별이 지구 곳곳의 살육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와 차별 사이에는 몇 개의 중요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대칭적 힘과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무력적 충돌은 공멸을 야기시킵니다. 비대칭적 힘과 권력의 상태에서의 충돌은 약소자들에게 비인간적 상황의 도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비대칭적 힘과 권력을 통한 약소자의 제거는 새로운 형태의 약소자를 발명하게 되고, 반복되는 악순환속에서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단기간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승리, 혹은 성장과 발전이 결국 장기적인 시간을 염두에 둔다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폭력의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의 부메랑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이부동은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사람이 군자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소인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이부동의 정신이 잘 들어난 말중에 최근에 알려진 말은 바로 ‘톨레랑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잔인한 역사에 기초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서로간의 차이가 만들어낸 수많은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서로가 다르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자는 톨레랑스라는 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 톨레랑스라는 바로 화이부동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청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 썩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본문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감탄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드물고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일이 어렵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비로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와 다른 취향과 다른 버릇과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청년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할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 속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눈! 기독교청년이 지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입으로만 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은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표현을 보다 깊게 이해해본다면 그것은 입술과 혀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온전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밥먹듯이 행사한다면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언어’이라는 ‘body language’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청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일! 그 일의 요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경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은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기독교청년, 몸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기독교청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일과나 아름다운 일인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85세 청년, 갈렙

(여호수아 14:6-12)

박 장규 목사 (동탄 교회)

며칠전 강화도에서도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섬에 목회하는 친구목사가 우리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자녀들 대학공부 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둘이나 되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공부시키니 1년에 학비만 2천 만원이 들고 기숙사비나 또 하숙비, 책값이나 용돈까지 하면 두 아이 기르는데 1년에 약 4천만원까지 들어 가니 시골에 있는 목사는 이런 대출 저런 대출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사모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향해 기도하여 나가지만 현실이 매우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데모를 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졸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취직이 되지 않기에 대학을 4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5년, 6년 정도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자신의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하기에 준비 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교회 내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청년의 비중은 5% 정도라고 하는데 중·고교 시절 교회를 다녔다가 20대가 돼도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청년 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가운데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알바’와 ‘스펙’ 자신의 경험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들의 고민과 불안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단체가 전국 63개 대학 4061명의 학생을 조사했더니 폭음자 비율이 무려 71.2%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고민과 불안한 마음을 술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여 청년들의 비전과 영적인 목마름은 더욱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한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는 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85세이지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선포했던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그는 결국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85세의 청년,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1.식지 않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Power Vision)

(수 14: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

갈렙은 45년 전 40세 때에 모세의 명을 받들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참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수기13장,14장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장대와 같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만해도 두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야단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대를 ‘염려의 시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불안과 염려는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Fear of falling),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ud noise), 버려지는 두려움(Fear of being abandoned)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아기의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집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입니다.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아기 때부터의 기본적 두려움이 평생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시대의 젊은이들이 가보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불안이 결국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조건과 실력, 세상의 자리와 직업, 돈과 쾌락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366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의 날 수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잃어버렸던 비전과 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 다. 비전을 보았습니 다. “그 땅은 아름답습니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 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 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 다. 여호와와 함께 합시다.” 옷을 찢어가면서 까지 외쳤습니 다. 강한 꿈과 비전이 터져 나왔습니 다.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 다. 갈렙의 비전은 잊어지지가 않았습니 다. 결단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 다. 그 강한 비전이 그를 인도해 왔습니 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산지를 내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 다. 그는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강건하여 지금도 싸울 수가 있다고 말합니 다. 이겨 낼 수 있다고 말합니 다. 정말 40때 체력과 85세의 체력이 같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비전이 강한 꿈이, 강한 비전이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룬트비의 비전

덴마크는 원래는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전쟁을 여러 번 일으켜 계속 패전함으로 국토는 좁아졌고 국력은 기울어졌습니다. 특히 프로이센과의 오랜 전쟁에서 패전한 1864년 이후로는 비옥한 땅은 전승국에 다 빼앗기고 북녘의 척박한 땅 조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망한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선각자가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깨우치게 되면서 완전히 죽어가던 한 나라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그룬트비히목사입니다.

그룬트비히[Grundtvig, Nikolai Frederik Severin, 1783~1872] 목사는 자신의 조국 덴마크가 연이은 패전으로 인하여 국토는 줄어들고 민심은 피폐하여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희망을 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기를 “밖에 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운이 기울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투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도박이 성행합니다. 19세기 중엽의 덴마크 사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룬트비히 목사는 국토를 잃은 것을 비탄해 하고만 있지를 말고 온 국민들이 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여 나가자는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삼애운동(三愛運動)을 펼쳤습니다. ‘하늘사랑, 땅사랑 그리고 사람사랑’ 3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사랑’은 성경의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랑이고 ‘땅사랑’은 조국인 덴마크를 재건하는 겨레사랑이요 ‘사람사랑’은 동포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려는 사람들 가운데 달가스[Dalgas, Enriko Mylius, 1828~1894]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병대의 대령이었으나 패전 이후 상심하여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룬트비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용기, 새로운 비전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삼애운동으로 토박한 국토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임을 자각케 되었습니다.

그는 복讖 황무지에 도전하여 나무심기에 남은 삶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을 때마다 차가운 북풍과 토박한 땅 탓으로 나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는 무려 13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그 기후와 그 토양에 알맞은 나무를 찾아내어 270만평의 숲을 일구어 내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애운동에 헌신기로 한 인물 중에 크리스텐 콜(1816~1870)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덴마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의 열을 깨우치는 새 교육, 산교육을 펼치는 일에 헌신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두메산골로 들어가 허름한 물방아간 하나를 빌려서는 학교 교실로 개조를 하고 국민고등학교란 이름으로 국민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모집 광고를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학기에 15명의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크리스텐 콜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헌신할 사명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운동이 덴마크를 좌절의 역사에서 번영의 역사로 변모시킨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각자 그룬트비히 목사의 혼을 깨우는 설교에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은 달가스나 크리스텐 콜 같은 개척자들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 밭을 일구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에 덴마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룬트비히의 이 가슴에 함께 뜨거워지게 되고 그 비전에 함께 공감케 되었을 때에 새로운 덴마크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식어져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식어지면 차가워 집니다. 차가워 지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두려워 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한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열정을 식히지 마십시오.

2. 식지 않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Power Challenge)

(수 14: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그를 막는 다 할 찌라도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식지 않는 그의 도전정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강한 믿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후 4: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후 4:9)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 4: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청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도 비전과 열정이 없다면 노인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78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린 자는 마음의 주름살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자기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메시아 대망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불멸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안아 보았습니다. 대령 샌더스는 66세에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윌리엄윌리스라는 사람은 69세에 뚝단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레이건은 70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소설가 홈슨은 70세에 <커피잔 너머>라는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여전히 식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다면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지 않는다면 노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 육상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100미터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도 참여하고 장대높이뛰기에 미녀새라고 불리는 ‘이신바예바’도 참석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감동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출전하는 제이슨 스미스(Jason Smyth)라는 젊은이고, 또 한사람은 두 다리에 J자 모양의 얇은 탄소섬유 의족을 끼고 달리는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라는 젊은이입니다.

특히 23살의 피스토리우스라는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출신으로 두 다리가 없이 의족만으로 달리는 육상선수입니다. 장애인선수로는 이미 100미터 세계기록보유자이며 200미터, 400미터 세계기록보유자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무릎 아래 뼈가 없는 채로 태어나 한 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철제 의족을 사용해 걷는 법을 배운 그는 네 발 자전거부터 수상스키까지 섭렵했고 럭비를 하다 다친 뒤 재활훈련 때 육상을 시작해 선수가 됐습니다. 탄소섬유 재질의 보철다리로 희망의 레이스를 펼쳐 온 피스토리우스는 정상인들만 참석하는 올림픽에 도전하여 뛰고 싶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여 정상인과 대결을 펼쳐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실력이 조금 떨어져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번 세계 육상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꿈은 “장애인으로서는 정상인들과 똑같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여 꿈을 이루겠다, 나는 달리기로 세상의 벽을 뛰어 넘을 것이다”고 부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피스토리우스는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3.식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Power Faith)

(수 14: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수 14: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85세에 식어지지 않는 갈렙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85세 청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도 갈렙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변하지 않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식어지면 안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지금 나이 들어서 믿음이 식었다면 문제입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젊은이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개의 손잡이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의 손잡이,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어느 문을 열 것인지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결정입니다.

최화진 교수의 역전 인생 스토리 <생각하고 꿈꾸는 만큼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대학인 줄리어드 음대에 수석입학을 하고 뉴욕의 나약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최화진 교수의 인생은 믿음으로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낸 분이십니다. 미국 백악관초청공연, 카네기홀, 링컨센터 공연, 동남아 유럽, 중동, 세계 순회공연 등을 통해 뉴욕타임즈에서는 ‘가장 힘차고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한 테너 최화진 교수입니다.

그는 1952년에 서울에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키도 작아서 155cm정도였습니다. 성격도 부정적이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만나기 싫어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지만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육군본부 남성 4중창단을 조직해서 활동했습니다. 우연히 극동 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제대후에 함께 선교여행을 가지고 제안하여 세계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미국에서 음악공부하고 싶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비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고 심지어 아내마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은 환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찬양콘서트를 열어 후원금을 모아 편도 비행기표를 모으고 40달러 약4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선교여행 때 만난 목사님도움으로 미국 시골 허름한 집에 도착해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음악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러 대학의 입학원서를 갖다 주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최화진 교수는 줄리어드 음대 입학원서를 쓰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입시요강이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프랑스어로 된 노래 2곡씩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레슨 한번 받지 않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노래 테이프를 사서 반복해 들으며 실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테이프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 연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쟁쟁한 학생들을 뚫고 수석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뉴욕에 갈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후원금을 모아서 생활비도 마련했습니다. 또 줄리어드 대학원까지 졸업할 때도 한 학교에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뉴욕 나약대 음대 학과장이 감동을 받아 음대 성악과 교수로 추천해주어 지금까지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 고비 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최화진 교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꿈꾸는 것만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힌 그는 음악적 꿈을 꾸기 시작해 대가들의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큰 꿈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주님은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85세 청년, 갈렙은 식지 않은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는 85세 청년 갈렙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돌어가면서 - 지피지기 知彼知己

때때로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로부터 올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때, 혹은 누군가와 연합하여 일할 때 서로 각자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관계 안에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은 없나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는 역시 무지라고 말하고 싶군요. 먼저 모임을 열면서 나의 사역스타일을 알아보는 활동을 해 보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일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세요. 이 훌륭한 심심풀이 도구 역시 여러분을 충분히 말해주지는 못한 다는 한계를. 당신은 내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새로움을 간직한 사람인걸요.

나의 사역스타일은?

아래의 각 지문 중 두 문제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합니다.

두 문제가 한 쌍의 선택지입니다. 자기와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는데 둘 중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두 80문제이니 40문제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결과지는 따로 있습니다)

1. 나는 활동을 좋아한다.
2. 나는 문제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다룬다.
3. 나는 변화를 좋아한다.
4. 나는 개인 활동보다 팀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
6. 나는 과거보다 미래에 더 관심이 많다.
7. 마감 날짜를 지키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8. 나는 조직이 잘된 그룹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9. 연기하는 것(미루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10. 새로운 아이디어는 먼저 테스트해 본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11.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활동하는 것을 즐긴다.
13. 나는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원한다.
14. 한가지 일을 시작하면 나는 끝까지 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
15.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잘 준다.
16. 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 나는 내가 수행한 일에 대한 결과/반응을 듣기를 기대한다.
18. 나는 일을 한 단계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19. 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20. 나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21.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다.
23. 계획은 성공의 열쇠이다.
24. 나는 오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을 보면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25. 나는 압력 속에서 침착한다.
26. 나는 경험을 매우 중시한다.
27. 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28. 사람들은 내가 생각의 회전을 잘 한다고 한다.
29. 협력은 내게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30. 나는 대안을 시험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31. 나는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
32.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33. 나는 실제로 무엇을 해봄으로써 배운다.
34. 나는 내 머리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 35. 나는 자세한 것(세밀한 것)을 싫어한다.
- 36. 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 37. 행동하기전 반드시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
- 38. 나는 어떤 그룹의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
- 39. 나는 나 자신이 무슨 일이나 결정을 확실하게 잘 내린다고 생각한다.
- 40. 나는 일을 시작하고 끝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 41. 나는 도전적인 일(힘드는 일)을 찾아서 한다.
- 42. 나는 관찰과 통계자료를 신뢰한다.
- 43. 나는 내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44. 나는 새로운 일을 설계하기 좋아한다.
- 45. 나는 독서를 매우 즐긴다.
- 46. 나는 나 자신을 "돕는 사람(helper)"라고 생각한다.
- 47. 나는 한번에 한 가지씩만 집중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 48. 나는 성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 49.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 50. 나는 다양한 것을 좋아한다.
- 51. "사실(Fact)"은 스스로를 말한다.
- 52. 나는 상상력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한다.
- 53. 나는 오래 걸리고 진척이 느린 일을 싫어한다.
- 54. 나는 생각을 실재없이 한다.
- 55. 중요한 결정은 조심스럽게 내려야 한다.
- 56. 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 57. 나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흔히 결정을 내린다.
- 58. 감정은 문제를 일으킨다.

- 59.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기분이 좋다.
- 60. 나는 생각이 잘 돌아간다.
- 61.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한다.
- 62. 나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믿는다.
- 63. 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 64. 좋은 대인관계는 필수적이다.
- 65. 나는 충동적이다.
- 66. 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용납한다.
- 67. 나는 지적으로 자극되는 것을 좋아한다.
- 68.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언어전달)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 69. 나는 조직적인 것을 좋아한다.
- 70. 나는 흔히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하는 경향이 있다.
- 71. 자기성취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 72.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일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이다.
- 73. 나는 아이디어 내는 것을 즐긴다.(나는 여러 가지 생각하기를 즐긴다)
- 74. 나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 75. 나는 내가 잘 하는 일을 하기를 즐긴다.
- 7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하기를 즐긴다.
- 77. 나는 세밀한 일을 잘 참고 해낸다.
- 78. 나는 추상적인 것이 재미있고 즐겁다.
- 79. 나는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을 좋아한다.
- 8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알아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점검해 본 사역스타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디 한번 알아봅시다. 각 스타일별로 동그라미 수를 세어 보세요. 다 합해서 총 40 개가 되면 맞습니다. 40 개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세어 보세요.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당신의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것은 단지 여러분 삶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타일 1	1-7-9-13-17-24-26-32-33-39-41-48-50-53-57-63-65-70-74-79
스타일 2	2-8-10-14-18-23-25-30-34-37-42-47-51-55-58-62-66-69-75-77
스타일 3	4-5-12-16-19-22-27-29-36-38-43-46-49-56-59-64-68-72-76-80
스타일 4	3-6-11-15-20-21-28-31-35-40-44-45-52-54-60-61-67-71-73-78

스타일 1	개	ACTION TYPE (행동 중심 유형)
스타일 2	개	PROCESS TYPE (과정 중심 유형)
스타일 3	개	PEOPLE TYPE (인간 중심 유형)
스타일 4	개	IDEA TYPE (이성 중심 유형)
총	개	

나의 스타일은?

스타일1 Action type	스타일2 Process type
장점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결과, 업무 중심적이다. 감정을 무시할 정도로 큰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단점 상대방에게 민감하지 못하고 애정이 많지 않다.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충동적이기도 하다.	장점 과정 중심이며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 스케줄을 잘 짜며 실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뛰어나고 분석적이고 계획적이며 현실감이 있다. 논리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성실하다 단점 외골수이며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세세한 방법에 집착하며 완전주의적이다.

스타일3 People type	스타일4 Idea type
장점 :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온정적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어려움에 민감하다. 대화를 선호하고 그룹 내에서의 희망과 평온을 중시한다. 이해심, 동정심이 많고 관대히 용납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자세히 알아 채워주는 사람이다. 단점 : 일의 성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허락하는 yes man이 되기 쉬우며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장점 원리 중심이며, 이성중심이다. 창의적이고 추상적, 이상적이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원리나 이성적 추론에 관심이 많다. 쉽게 동기가 유발된다. 머리회전이 빠르며 비판적이다. 개혁자적이고 자신감이 있다. 특히 People type에 대해서 못 참아한다. 단점 : 비실제적이며 회피적이다. 지배적,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다.

스타일5 Blend type
(이 타입은 각 타입의 합의 평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장점 모든 것을 잘한다. 다양한 관심이 있으며 활동적이고 조직 내에서의 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잘 적응하고 모든 사람들과 잘 융합한다. 단점 특별한 깊이가 없으며 일을 벌리는 타입이다. 산만하고 철저하지 못한다.

머리를 맞대야만 하는 본 활동을 시작해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이 가진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하는 것보다 ‘혼자 하면 좋을걸!, 혼자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걸!’ 하는 아쉬움이 종종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는 한 나의 의지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여럿이 일을 만들어 가야하는 때와 장소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발휘해야 할 지혜가 있다면, 연합함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연합함의 흥미진진함과 그 상상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고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각 그룹별로 앞으로 나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프리카 오지탐험을 위해 우리교회 청년대학부가 팀장1인 여자3, 남자3, 모두 7명이 베이스 캠프에서 봉고트럭을 타고 출발을 했다. 미션은 차로 사흘이나 걸리는 산간오지 A종족의 문화, 종교 및 언어연구를 해 오는 것이다. 이 미션은 10일 후에 있을 세계 미전도 종족 세미나에 한국대표로 보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출발한지 이틀째 점심에 팀원 중 여자1명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팀장이 그녀를 태워 가까운 곳에서 치료하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며 나머지 팀원5명을 남겨두고 떠났다. 팀장이 만일 해지기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중한 병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말까지 남기고 떠나갔다. 물론 그 차에는 생활에 필요한 텐트, 옷, 음식, 여비, 보호 기구 등이 모두 있었는데 그것들을 깜박하여 모두 실고 가버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캄캄해졌는데도 팀장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마침 1KM 전방에 낯선 종족이 사는 불빛이 보였다. 외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남겨진 5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리고 미션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치면서..

자. 듣고 보니 다들 멋지고 훌륭한 해결책들이 발견되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지 혀를 내 두를 만큼 놀라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그 일을 생각해냈다면 어떨을까요? 마음을 함께 모으고 만들어 낸 계획보다 나 혼자서 생각해낸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1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제각기 다른 성격과 기질, 능력과 재능이 담겨져 있지요. 혼자만 있을 때는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조각 조각이 모여 멋진 모자이크가 완성되는 것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더할 때 그 시너지의 힘은 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6:1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의 첫 시작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상호 세워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청년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서울연회 중랑지방 태은교회

1. 교회 & 청년부 소개

태은교회는 올해로 창립 27주년이 된 젊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장년 출석 200명, 교회학교 출석 50명 정도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특징처럼 따뜻하고 가족적인 친밀함이 있으며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동안 청년부는 청년 예배가 없었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청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교사, 찬양, 성가대 등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봉사자로만 인식 되었고 청년 모임은 점점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만 전담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주일에도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 청년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청년들도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서로 친한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과 교제가 부족하다보니 마음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부흥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이나 행동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청년 예배의 시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2011년 3월부터 주일 오후 2시에 4부 예배를 신설하고 청년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예배는 찬양과 말씀, 기도가 있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주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양육 및 교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3. 청년주일 이렇게 지냈습니다

태은교회는 그동안 매년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청년주일로 정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청년주일에는 주일 3부 예배를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찬양과 사회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순서도 청년들을 임사자로 세웠습니다. 특별 순서로는 청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청년부가 활동했던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여 보여 드리고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청년부를 소개하고 난 후에 모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청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학현금

청년주일에는 전 성도가 청년들을 위한 장학현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현금은 장학팀에서 관리하고 청년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히 2010년에는 청년부 비전트립을 위한 현금을 드렸고 2011년 겨울 일본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감청 이벤트 적극 참여하기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이 있다면 감청연합회입니다. 개 교회에 청년 주일을 알리고 애쓰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청년주일 예배 자료집입니다. 기도문, 설교, 소그룹 공과 자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만들어 주시는 티셔츠도 너무 예뻐서 청년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고 예배드립니다. 감리고 청년들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청소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날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청소를 합니다. 사실 청년들은 교회를 청소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 곳곳을 청소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만남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에게 궁금했던 내용들을 쪽지에 적고 뽑아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장로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공동체



부평제일감리교회
부평제일청년교회

부평제일청년교회(BuPyung Jeil Youth Church)는 2001년 12월에 부평제일교회(담임: 이천휘 목사) 안에 젊은이들(미혼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공동체로 창립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청년목회의 비전과 배려로 청년부에서 청년교회로 독립이 되었고, 올해(2011년)에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공동체(Full of Love Youth Church)라는 비전(Vision)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 청년들은 매 주일 오후 2시에 드려지는 **청년교회 주일예배**(80-100명)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성경&기도 아카데미**(20-30명)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일은 **해외선교주일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 청년들의 해외선교의식을 고취시키며 거의 모든 청년이 해외선교헌금에 동참하여 두 명의 선교사(태국, 캄보디아)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은 **14개의 소그룹**으로 편성이 되어 14명의 목장과 소그룹리더의 인도하에 소그룹원들(약, 10여명)간의 친밀한 교제와 말씀의 은혜 나눔, 그리고 중보기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드러진 소그룹헌금으로는 국내의 4개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

"새벽이슬 같은
죽어 청년들이
주께 온노도다." (시110:3)
"있어나라 빛을 밝히라
이슬 네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어디라."
(시66:1)

그리고 선교사역부(5명의 행정리더 : 예배사역부, 선교사역부, 문화사역부, 관리사역부, 재정사역부리도) 주관으로 한 해에는 **국내 Mission1박2일**(우리청년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사역)을, 또 한 해에는 **해외 Mission4박6일**(우리청년교회가 후원하는 해외선교지역 지원사역)로 기도와 물질의 후원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질적인 Mission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청년교회는 우리교회와 교우들의 자랑거리이다. 요즈음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아쉬워하는데, 우리 청년교회의 젊은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더 많이 모이고 흠어져 세상과 교회에서 빛을 발하며 예배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본다.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성민청년공동체

올 상반기 핫 트렌드를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후보 중 하나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힘이 지금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변화와 재창조입니다.

7명의 가수들은 경합 때마다 자신의 스타일을 뛰어넘는 변화를 추구하며 과거의 곡들을 멋지게 리메이크하는 창조 활동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은 첫째 훌륭한 원곡이 있기에 가능했으며 둘째 가수들이 노래라는 기본이 되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노래라는 단순함에 집중하여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성민청년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새롭게 창조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본에 충실 할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청년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청년부가 속한 성민감리교회는 차 창규 담임목사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5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의 일치성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청년부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부는 새로운 형제, 자매를 양육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성화되어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3가지의 키워드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 - 말씀, 기도, 전도

청년부는 리더이든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게 된 새신자이든 늘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기본으로 성장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하기에 청년부들의 삶에 쉽게 체화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청년부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 말씀.

성민청년부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어떤 부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새로운 청년은 5주과정의 새 신자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훈련시킵니다.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으로 읽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5주 과정이 끝나면 청년들은 상황에 따라 12주 양육과정(분기별로 6주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큐티훈련과 성경 1통독에 대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청년들은 제자훈련과정 1단계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 큐티 모임을 진행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은 약 3~4주간의 시간을 정해 신약 혹은 구약 통독에 집중하여 청년들의 1년 1통독을 가이드합니다.

둘, 기도.

리더는 기도하는 자이다.

이것은 청년부의 리더를 뽑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를 뽑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뽑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리더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자이며 주님과 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속장은 청년부의 중심입니다.

청년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가장 집중하는 일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담당목회자의 부재에도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로 도울 것인가에 집중하며 기도로 동역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는 토요 기도모임은 8명의 속장과 12명의 찬양팀원,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돕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모임입니다.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요전도모임을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전도의 출발임을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는 중보기도팀장이 있어 기도의 중심을 이룹니다.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급박한 일에는 중보기도팀장을 중심으로 문자로 연락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매주 기도의 체험을 나누게 하여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에 대한 도전을 일으킵니다.

셋, 전도.

전도는 청년부가 시작하기에 가장 어렵고 늦게 시작된 영역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도의 영역에 헌신하는 일은 청년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관계전도 이전에 함께 어울리며 전도할 수 있는 노방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그리 쉽게 보이지 않았지만 전도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년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5시 30분 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봄에 행했던 전도축제때는 10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했으며 현재 약60명의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한 전도는 1년에 2차례씩 이뤄지는 전도축제를 통해 관계전도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무리를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리가 따르는 한 사람을 만드는 가치관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무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가치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버트 콜먼은 예수님이 이루신 부흥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다수가 따르게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다.”

지금 시작된 부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본에 충실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프리카로! 생명을 구하는 모기장을 보냅니다!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 (신30:19)



UN 재단의 Lets Go! 캠페인은 2006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운동을 한국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약 80만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한국인의 힘으로 살려내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UN과 함께 말라리아를 지구상에서 없애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눔의 소중함을,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생명의 희망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만원의 후원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감 청 이 꺾 어 온 길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 1997년 청년회 창립 100년 행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선교 비전을 세우고 도약하는 청년회, 성숙해지는 청년회가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 적

-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 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합니다.

- 세계 감리교 청년운동 및 각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대하여 기독교청년운동과 교회일치에 협력하며 세계기독교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교리와 장정 중)

감 청 교 육 프 로 그 램

◎ 평화놀이

- 대 상 : 중고등부, 청년회, 연합모임

- 인 원 : 10~30명 사이

- 내 용 : 재밌는 놀이를 통해 소통훈련,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놀이



대 상 : 중고등부, 청년회, 연합모임

인 원 : 10~30명 사이

내 용 : 눈으로만 읽던 성경을 입과 몸으로 읽어냄으로써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성경 열정 회복 프로그램

◎ 임원지도력 훈련

- 대 상 : 청년회 임원, 연합회 임원
- 인 원 : 5~20명 사이
- 내 용 :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 만들기 기법, 회의진행법, 문서 작성법, 지도자의 자질훈련 등.

◎ 영어공부 모임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1~5시까지
- 장소 : 감리교청년회 사무실(광화문)
- 내용 :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기독교청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임

감 청 워크 캠프



본 워크캠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워크캠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리교의 희망이 될 감리교청년들에게 감리교청년들로서 살아가야 할 감리교회의 의미를 알고, 그 지도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워크캠프가 될 것입니다.

일 시 : 2011년 1월 중순(11박12일)
장 소 : 캄보디아 프레이벵
주 최 : 감리교 청년회전국연합회
자격조건 : 감리교청년이면 누구나 다
참가인원 : 선착순 10명

